

취업 주부의 직업 및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Analysis on Relative Effectiveness of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n Employed Wives' Job- and Family-Related Stress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교수 정문자
강사 이미리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Professor : Chung, Moon Ja

Lecturer : Lee, Meery

◀ 목 차 ▶

I. 문제제기
II. 선행연구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of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variables with job- and family-related stress among 293 employed wives. We found that age, job types, working in weekend, and family cohesion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explanation of job-related stress. We also found that job types, working in weekend, family adaptation, family cohesion, and employment motivation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explaining the variation of family-related stress. Job-related stress was more explained by demographic variables than psychological ones, whereas family-related stress was more explained by psychological variables than demographic ones.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current findings were discussed.

I. 문제 제기

취업주부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자아 실현의 욕구

를 충족시키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게 되며, 가정 경 제에 기여함으로써 자아 만족과 행복감을 경험하기도 하나, 다중 역할 수행으로 인한 갈등, 피로감, 시

간의 제약 등으로 스트레스 또한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는 부모 역할 부담이 커서 자녀 양육기에 있는 취업주부의 스트레스는 더욱 크다(고은숙, 김경자, 1993; 김영희, 1992; 임혜경, 임정빈, 1995; 전영자, 1991; 조은숙, 옥선화, 1998)

개인의 스트레스는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해치는데(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 1991), 특히 취업주부들의 스트레스는 부부관계(고정자, 1998, 장병욱, 이정우, 1998)와 부모-자녀 관계(김경진, 1996; 안재연, 박성연 1992; 이정희, 1993; Crouter, MacDermid, McHale & Perry-Jenkins, 1990)를 포함한 가족관계에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취업주부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주부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취업주부의 스트레스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주부들의 어떠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밝혀지고 있으나 스트레스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영향력은 스트레스의 내용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취업주부의 스트레스가 크게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가정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분류되고 있음을 고려하여(정문자, 이미리, 어주경, 1998; 정문자, 이미리, 1998; 전영자, 1997), 취업주부 중에서도 어머니의 보호와 감독이 많이 요구되는 취학 전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직업 및 가족 스트레스와 관련된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보자 한다. 또한 이들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들간의 스트레스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정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시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취업주부의 직업 및 가족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2) 취업주부의 직업 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3) 취업주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우리 나라 취업 주부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이나 매개 변인으로 다루고 있다(고은숙, 김명자, 1993; 고정자, 1994; 고정자, 김갑숙, 1997; 이연숙 외, 1991; 전영자, 1997; 조희금, 1999).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보고 있는 연구들에서는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취업 주부들의 적응정도-예를 들어 생활만족도, 직업만족도, 결혼만족도, 갈등수준, 신체적, 심리적 증상, 대처 방안 등-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편 스트레스를 매개 변인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들에서는 취업주부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과 그들의 적응 수준간의 관계가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서 취업 주부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으나 스트레스 수준과의 직접적 상관 정도나 스트레스 관련 변인들 간의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어렵다.

1.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인구학적 변인

선행연구들은 취업 주부의 연령, 학력, 직업 종류, 소득, 주말 근무 여부를 비롯한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주요 변인임을 제시한다. 먼저, 취업주부의 연령과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고은숙, 김명자(1993)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사부담, 친족과의 관계, 경제적 지출, 직무문제를 포함한 6가지 영역의 스트레스를 측정된 결과, 30-50대 취업 주부가 20대 주부에 비해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았다. 연령과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는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부부관계 스트레스는 450대 주부가 230대 주부에 비해 높게 인지하였다. 반면 자녀와의 관계 스트레스는 30대 이상 주부가 20대 주부에 비해, 가사 부담 문제는 30대가 50대보다, 경제적 지출 관련 스트레스는 30대가 20대 그리고 450대 주부에 비

해 높게 인지하였다. 이처럼 성인 초기에서 후기로 진행할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들이(고정자, 1994; 이평숙, 1984) 있는 반면 그 반대되는 연구 결과 또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김영철, 정향균, 이시형(1989)은 40대의 경우 과도한 일상업무와 생활의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아 불안,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경험하나 50대에는 이러한 증상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령과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연구에 따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취업 주부의 학력은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수준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 고정자(1994)는 맞벌이 부부가족에서 부부의 심리적, 신체적 디스트레스가 가정 환경, 가족자원, 그리고 스트레스 인지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연구에서 고졸 이하의 집단이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취업주부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김경아, 이정우, 1990).

취업주부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들도 있다. 정문자, 이미리, 어주경(1999)은 유아기 자녀를 둔 도시 저소득층 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에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저소득층 취업주부의 경우, 단순 근로직, 서비스직보다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주부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고은숙, 김명자(1993)도 첫 자녀의 연령이 만 5세 이상인 20대에서 50대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서비스, 단순 노무직, 판매직의 취업주부가 전문관리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취업주부에 비해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김영철, 정향균, 이시형(1989)은 전문직 취업주부가 직업 지위가 낮은 취업주부에 비해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한다고 하였다. 전자의 연구들에서 단순 노무직이나 판매직의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노동 조건 등으로 인해서 직업 지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해석을 하며, 후자의 연구들에서는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개인의 성취욕과 같은 심리적 취업 동

기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취업주부의 생활 만족도 혹은 직업-가정 갈등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취업주부의 소득, 주말 근무 여부를 비롯한 근무 시간의 융통성, 그리고 자녀 양육부담이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되어 있을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박미혜, 박명희(1999)는 기혼 여성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무소득, 근무 시간의 융통성, 자녀 유무 등은 경제적 만족, 가정 생활 만족, 시간 사용의 만족도와 의미 있게 관련된 주요 변인임을 보고하였다. 즉, 근무소득이 높고 근무시간이 융통성이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 만족도가 높았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주부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결과는 고정자(1994)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또한 소득이 많을수록 취업주부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보고되었다(구혜령, 1991, 장병욱, 이정우, 1998).

임혜경, 임정빈(1995)은 판매서비스직에서부터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며 자녀를 1명 이상 둔 530명의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부의 학력, 소득, 근무 시간의 융통성이 직업-가정 갈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임을 보고하였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융통성이 있을수록 직업-가정 갈등이 낮았으며,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직업-가정 갈등을 자주 경험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부의 소득 수준에 대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다른 연구 결과(구혜령, 1991, 박미혜, 박명희, 1999; 장병욱, 이정우, 1998)들과 일치되지 않는 결과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요약해보면 취업 주부의 연령, 학력, 직업의 종류, 소득, 주말 근무 여부, 자녀양육부담 등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주요 인구통계론적 변인임을 제시한다.

2.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

일반적으로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심리적 특성이 적응변인과 의미 있게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김정

자, 고정자, 김선희, 정영숙, 심혜숙, 최원철, 최순, 문소정, 1998). 앞에서 제시된 인구론적 특성 이외에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어 있는 취업주부들의 스트레스 및 갈등, 만족도와 관련된 주요 심리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첫째, 취업주부들의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대한 인지수준을 들 수 있다.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역할 갈등, 생활 만족도와 관련된 주요 변인이라는 점에서는 선행 연구들간 일치점을 보이거나 결과들에 있어서 다소 불일치점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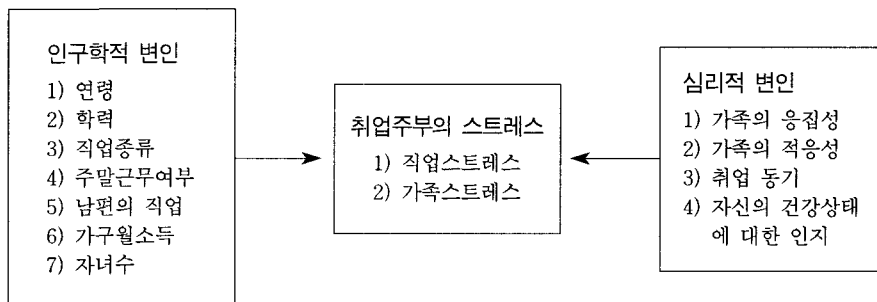
고정자, 김갑숙(1997)은 저소득층과 중류층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모형 분석 연구에서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이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가족의 응집성이 낮을수록, 가족의 적응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였다. 가족 응집성 인지수준과 취업주부들의 적응간의 긍정적 관계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보고되었다(김명자, 1972; 박경숙, 1993; 이정우, 이미선, 1995). 반면에 김수연, 김득성(1994)은 취업주부의 가족의 적응성에 대한 취업 주부들의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역할 갈등이 감소된다고 하여, 가족적응성 인지 수준과 취업주부의 적응간의 긍정적 관계를 발견함으로써 고정자, 김갑숙(1997)의 연구와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둘째, 취업 동기도 취업주부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관련된 주요 변인이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한 경우에 일·가족 갈등이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한 연구 결과가 있는(고정자, 1994; 고정자, 김갑숙, 1997; 조희금, 1999) 반면 전문직 여성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취업하는 경우가 적으나 대신 자신의 취업으로 인해 부모와 아내로서의 역할 수행을 소홀히 하는데 대해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결과도 있다(Mortimer & London, 1984).

셋째, 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신체적 부적응이나 피로수준이 높을수록 직업-가정 갈등 수준이 높거나(Keith & Schafer, 1980; Kelly & Voytanoff, 1985; Pleck, Staines, & Lang, 1980),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음이 보고되었다(이연숙 외, 1991).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서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들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나 스트레스 이외에도 갈등, 생활만족도 등과의 관계를 본 연구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결과들이며,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들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도 연구들간 불일치점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종류를 분류하여 살펴본 연구들이 적어 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들의 영향력이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들의 스트레스를 직업스트레스와 가족스트레스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들이 무엇이며 각 변인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관련성과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을



〈그림 1〉 취업 주부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모형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취업주부들의 스트레스와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을 선정하여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인구학적 변인으로 주부의 연령, 학력, 직업의 종류, 주말 근무여부, 남편의 직업, 가구 월소득, 자녀수를 선정하였으며, 심리적 변인으로는 가족의 응집성, 적응성, 주부의 취업 동기, 건강 상태에 대한 인지를 선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유아기 자녀를 둔 293명의 취업모로 서울 시내와 경인지역(부천, 성남)에 위치한 어린이집 12개소를 통해 편의 표집되었다.

본 연구자료는 정문자, 이미리, 어주경(1998)의 연구에서 1차로 수집된 자료의 일부로 1997년 4월 한 달 동안 어린이집을 통해 질문지를 어머니에게 배부하고 수거한 것으로 수거율은 85%이었으며 회수된 301부의 질문지 중에서 무응답이 많은 사례 8부를 제외하고 총 293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및 심리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취업 주부들의 평균연령은 33세로 대부분이 30대였으며(76%), 학력은 반 이상(57%)이 고졸이었다. 종사하고 있는 직업으로 사무직(4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판매 서비스직(24%)이었다. 주말 근무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쳐 평균 3시간 정도 일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연구대상 중 43%가 주말에 근무를 하지 않으며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심리적 특징

변 인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주부의 연령	20대	51(17.4)	32.73 (3.58)
	30대	223(77.6)	
	40대	14(4.7)	
	무응답	5(1.7)	
주부의 학력	무학~중졸	21(7.2)	
	고졸	145(49.5)	
	전문대졸	36(12.3)	
	대졸	90(30.7)	
	무응답	1(.3)	
주부의 직업종류	노동	19(6.5)	
	단순기술직	36(12.3)	
	판매서비스직	69(23.5)	
	자영업	21(7.2)	
	사무직	143(48.8)	
무응답	5(1.7)		
주부의 주말(토·일) 근무시간	0시간	126(43)	3.28 (3.68)
	1~5시간	95(32.4)	
	6~10시간	48(16.4)	
	11~15시간	10(3.4)	
	16시간이상	2(.7)	
	무응답	12(4.1)	
주부의 월소득	50만원 이하	60(20.5)	98.26 (53.06)
	51~100만원이하	126(43)	
	101~150만원이하	74(25.2)	
	151~200만원이하	27(9.1)	
	201~250만원이하	5(1.7)	
251~300만원이하	1(0.3)		
남편의 학력	무학~중졸	10(3.4)	
	고졸	99(33.8)	
	전문대졸	32(10.9)	
	대졸	149(50.9)	
	무응답	3(1.0)	
남편의 직업	무직	5(1.7)	
	노동직	19(6.5)	
	단순근로직	55(18.8)	
	판매서비스직	25(8.5)	
	자영업	48(16.4)	
	사무직	133(45.4)	
무응답	5(1.7)		
자녀수	1명	88(30.0)	1.76(59)
	2명	185(63.1)	
	3명	17(5.8)	
	4명	2(.7)	
	무응답	1(.3)	
가족의 적응성			3.66(.62)
가족의 응집성			4.32(.67)
취업 동기	자기 실현	134(45.7)	
	돈을 벌기 위함	122(41.6)	
	사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함	31(10.6)	
	무응답	6(2.0)	
자신의 건강에 대한 지각	건강상태 좋음	120(41.0)	
	건강상태가 좋지않음	172(58.7)	

1) 구체적인 자료수집 절차에 대해서는 정문자, 이미리, 어주경(1998).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특성 조사 : 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53%가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주부의 월 소득은 평균 98만원이었으며 100만원이하가 64%로 가장 많았다.

남편의 학력은 반 정도가 대졸이상이었다(51%). 남편의 직업수준은 취업 주부와 마찬가지로 사무직 종사자가 45%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자녀수는 1.8명으로 2명을 둔 가족이 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명(30%), 3명, 4명의 순이었다.

가족의 적응성과 응집성 수준에 대한 취업주부의 인지정도는 문항평균점수를 통해 살펴보면 적응성은 3.66으로 3(보통이다)과 4(약간 그렇다)의 사이 수준이며, 응집성은 4.32로 평정치 4(약간 그렇다)와 5(그렇다)의 사이 수준이었다. 연구대상 취업주부들의 취업 동기를 살펴보면 전체의 46%정도가 자기 실현을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42%가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또한 가족구성원 특히 시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집에 있는 것 보다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나올 것 같아 취업했다고 답한 사람도 11%였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이 반 이상이었다(59%).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직업스트레스와 가족스트레스 척도, 취업 주부의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 그리고 가족 응집성, 적응성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 직업 및 가족 스트레스

직업 스트레스와 가족 스트레스를 재는 문항 수는 각각 12문항이다. 각 문항의 내용은 취업 주부들이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병행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일상사를 기술한 것이다. 총 24개 문항은 예비조사를 통해 300명의 취업 주부에게 직장이나 가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나 고민거리가 무엇인지를 개방식으로 질문하여 답한 내용을 내용분석을 통해 작성하였다. 직업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를 들면 1)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나 윗사람

들 때문에 힘들다 2) 근무중에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등이다. 가족 스트레스 문항의 예로는 1) 나가야할 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 때가 있다. 2) 가사일과 육아일이 많다 등이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4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지수인 Cronbach α 값은 .82로 산출되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직업 스트레스 .87, 가족 스트레스 .74이었다.

2) 취업 주부의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 측정 질문지

취업 주부의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근무시간, 남편의 학력, 직업, 월소득, 자녀수를 묻는 항목들과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지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그리고 취업 동기를 묻는 항목을 포함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가족 적응성, 응집성

심리적 변인의 일부인 가족의 적응성과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수연, 김득성(1997)이 FACES II, III, IV의 척도를 종합하여 새로운 응집과 적응척도를 구성하고 이를 한국 가족에 적합하게 재표준화한 척도의 문항 중 적응성을 측정하는 5개 문항, 응집성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평정 척도로 평정치는 5: 그렇다, 4: 약간 그렇다, 3: 보통이다, 2: 별로 아니다, 1: 전혀 아니다로 구성되어 있다. 적응성 척도의 Cronbach α 값은 .48, 응집성 척도의 경우는 .70으로 산출되었다.

3. 자료 분석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해서는 각 스트레스 척도의 문항 평균 점수의 빈도분포를 살펴보았으며 연구문제 2와 3의 분석을 위해서 각 스트레스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그림 1>에 제시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행하였다. 위계적 회귀 분석의 Model 1에서는 인구학적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사용하였고, Model 2에서는 심리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에 추가하여 심리적 변인들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취업주부의 직업 및 가족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연구대상자의 직업 스트레스와 가족 스트레스 수준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취업주부들의 스트레스는 직업 스트레스 보다 가족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문항 평균점수는 직업 스트레스는 1.87(SD= .56), 가족 스트레스는 2.19(SD= .44)로 산출되었다. 이를 평정치에 대비해 해석해 보면 취업주부들이 인지한 직업 스트레스 수준은 전혀 아닌 것보다는 아닌 편이다에 가깝고, 가족 스트레스는 그런 편 보다는 아닌 편에 가깝다.

2. 취업 주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의 영향력

취업 주부의 스트레스와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들 간의 순관계(pure relationship)를 파악하고, 이 변인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취업주부의 직업 스트레스와 가족 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

	X	SD
직업 스트레스 ¹⁾	22.45	6.67
가족 스트레스 ²⁾	26.28	5.26

- 1) 직업 스트레스의 점수 범위는 2점~39점이며 평정치는 1: 전혀 아니다, 2: 아닌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이다.
- 2) 가족 스트레스의 점수 범위는 11점~41점이며 평정치는 직업 스트레스와 같다.

일반적으로 인구학적 변인에 비해 심리적 변인이 스트레스 수준이나 만족도 등 적응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들에 대한 설명력이 크다는 경향성으로 고려하여(고정자, 김갑숙, 1997; 김정자 외, 1998), 심리적 변인들의 스트레스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인구학적 변인들의 설명력을 통제된 뒤에도 의미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들의 직업 및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에서 인구학적 변인들을 첫 번째 Model에 투입하고 심리적 변인들을 두 번째 Model에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의 분포가 .00 ~ .55 로 독립변인들 간의 높은 상관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어 <표 3>에 제시된 모든 변인들을 회귀분석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취업주부의 직업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의 영향력

취업주부의 직업 스트레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의하면 Model 1에서 취업주부의 직업 스트레스를 의미 있게 설명하는 인구학적 변인은 주부의 연령, 직업종류, 그리고 주말근무 여부로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주부의 직업이 단순 기술직이나 서비스직보다는 사무직일수록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주부가 근무를 하지 않는 주부에 비해 직업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에서 투입된 인구학적 변인들의 직업 스트레스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4%이었으며 이들에 변인이 설명 변량의 증가에 의미 있게 기여하였다. Model 2에서는 Model 1에서 의미 있는 변인들 중 주부의 직업 종류를 제외한 주부의 연령과 주말근무 여부가 직업 스트레스를 의미 있게 설명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투입된 심리적 변인들은 취업주부의 직업스트레스와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전체 설명력을 의미있게 증가시키지 않았다.

〈표 3〉 취업주부의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 스트레스 변인들 간의 상호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연령	학력	직업종류	주말근무여부	남편직업	월소득	자녀수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취업동기	건강에 대한 인지	직업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
1. 연령	—	.02	-.05	-.00	.05	.46***	.07	.03	-.02	-.09	.02	.07	.05
2. 학력		—	.48***	.34***	.08	-.13*	-.25***	-.37***	.02	.03	.11	-.01	-.20***
3. 직업종류			—	.41***	-.02	-.20***	-.16**	-.22**	.00	.01	-.07	.18**	.02
4. 주말 근무여부				—	.05	-.09	-.10*	-.18**	.00	-.01	.00	.22***	.19**
5. 남편의 직업					—	.02	-.09	.14*	.02	.11*	.01	.04	-.17**
6. 가구 월소득						—	.05	.16**	-.11*	.08	-.00	.04	-.16**
7. 자녀수							—	.07	.10	-.06	-.05	-.06	.06
8. 가족적응성								—	-.15**	-.07	-.15**	-.05	-.36***
9. 가족응집성									—	.06	.55***	-.14*	-.41***
10. 취업동기										—	.15**	-.03	.28***
11.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	-.13	-.08
12. 직업스트레스												—	.41***
13. 가족스트레스													—

*p<.05, **p<.01, ***p<.001

〈표 4〉 취업주부의 직업 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의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Model 1		Model 2	
	β	R ² 증가분	β	R ² 증가분
인구학적 변인				
연령	.21**		.19*	
학력	.01		-.01	
직업종류	.15*		.13	
주말근무 여부 ¹⁾	.26***		.27***	
남편의 직업	.00		-.01	
가구월소득	-.07		-.05	
자녀수	-.13		-.10	
		.14***		
심리적 변인				
가족적응성			.09	
가족응집성			-.16	
취업동기 ²⁾			-.09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11	
				.04
전체 R ²		.14***		.18***

*p<.05, **p<.01, ***p<.001

1) 주말근무여부의 변수값(value)은 0: 없음, 1: 있음이다.

2) 취업동기의 변수값은 0: 자아실현, 1: 경제적 이유이다.

2) 취업주부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의 영향력

취업주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 의하면 Model 1에서 주부의 직업종류, 가구 월소득, 주말근무 여부가 취업 주부의 가족스트레스를 의미 있게 설명하는 변인들이었다. 이들 세 변인은 가족 스트레스 전체 변량의 13%를 의미있게 설명하였다. Model 2에서는 심리적 변인들 중 가족응집성, 취업동기, 가족적응성이 가족 스트레스 변량의 18%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Model 1의 결과를 해석하면 주부의 직업이 노동직이나 단순 기술직보다는 사무직일수록, 가구 월소득이 적을수록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취업주부들의 가족 스트레스 수준은 높았으며 Model 2에서는 경우,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실현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한 주부들의 가족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취업 주부의 가족 스트레스를 의미 있게 설명하는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심리적 변인들이

〈표 5〉 취업주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의 위계적 종다회귀 분석

	Model 1		Model 2	
	β	R ² 증가분	β	R ² 증가분
인구학적 변인				
연령	.10		.06	
학력	-.13		-.04	
직업 종류	.25**		.19**	
주말근무 여부	.18*		.19**	
남편의 직업	-.09		-.11	
가구월소득	-.21**		-.05	
자녀수	-.05		-.05	
		.13***		
심리적 변인				
가족적응성			-.15*	
가족응집성			-.26***	
취업동기			.20**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01	
				.18***
전체 R ²		.13***		.31***

*p<.05, **p<.01, ***p<.001

Model 2에서 투입되었으며 선정된 심리적 변인들의 수가 인구학적 변인들의 수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Model 2에서 추가로 설명된 변량이 Model 1에서 보다 크게 나타난 점은 취업주부들의 가족스트레스 수준은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심리적 특성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V. 논의 및 결론

최근까지 취업주부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스트레스가 취업주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거나 또는 취업주부의 사회 경제적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이 그들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가 어떻게 중재하는지를 봄으로써 스트레스를 주로 독립변인이나 중재변인으로 다룬 반면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관련변인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그 뿐 아니라

연구대상이나 스트레스 측정 방법의 차이로 상이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 주부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중요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을 파악하며 이들 변인과 스트레스와의 상호연관성을 알아봄으로써 취업주부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먼저 취업주부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문항 평정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직업스트레스보다는 가족스트레스를 조금 더 받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취업주부들이 직업보다는 가족 관련 일들에 대한 중요성 인지도가 높은 때문이거나 직업을 가졌다해도 가정에서의 책임이나 가정 일에 대한 부담 정도에서 자유롭지 않은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취업주부들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평가 결과 직업스트레스와 가족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들이 달리 나타났다. 직업스트레스 수준은 주부들의 심리적 특성보다는 인구학적 특성에 의해 더욱 잘 설명되었으며 가족스트레스는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심리적 특성에 의해 더욱 잘 설명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심리적 변인 중에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과 같은 가족관련 변인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

연령이 많을수록, 노동직이나 단순기술자보다 사무직에 종사할수록, 그리고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에 직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한편 가족스트레스의 경우에는 노동직이나 단순 기술직보다는 사무직에 종사할 수록, 가구 월소득이 적을수록 그리고 주말에 근무가 있는 경우에 그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학적 변인과 취업 주부의 직업과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결과는 연령이 많을수록 주부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고은숙, 김명자, 1993), 근무 시간이 융통성이 없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적을수록 취업 주부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들과도 일치한다(구혜령, 1991; 박미혜, 박영희, 1999; 임혜경, 임정빈, 1995; 장병욱, 이정우, 1998). 직업종류와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간에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성취

육과 같은 심리적 동기가 작용하여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선행 연구결과(김영철 외, 1989)를 지지한다. 그러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주부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는 결과보고(정문자 외, 1999; 고은숙, 김명자, 1993)도 많아서 이와 상반된 내용의 본 연구 결과는 본 연구대상의 직업종류 분포에 국한해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심리적 변인과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취업동기가 자기 실현보다는 경제적인 이유인 경우 그리고 가족적응력과 응집력이 낮은 경우에 취업주부들이 인지하는 가족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심리적 변인과 취업주부의 스트레스 특히 가족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취업동기, 가족적응성, 응집성과 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를 본 김수연, 김득성(1994), 조희금(1999)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가족적응성이 높을수록 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고정자, 김갑숙(1999)의 연구결과와 다르다. 가족적응성이란 가족체계가 당면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변화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Olson과 그의 동료들은(Olson, Sprenkle, & Russel, 1979) 적응성이 중간 정도인 가족이 아주 낮거나 높은 극단 가족보다 기능적으로 대처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하여 볼 때 가족적응성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결과와 고정자, 김갑숙(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점은 가족적응성 수준이 다른 연구대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연구대상의 가족적응성 수준에 따라 이들 두 변인간의 관계는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족적응성 수준과 주부의 스트레스 수준은 곡선적 관계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취업주부들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인구학적 변인보다 심리적 변인의 설명력이 더 컸던 반면, 직업스트레스는 심리적 변인의 설명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심리적 변인 중 가족관련 변인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취업주부들의 스트레스 중

에서 직업스트레스보다 가족스트레스가 주관적 특성의 소산임을 시사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끝으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선정된 취업주부들의 스트레스 관련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들 중에서 주부의 학력, 남편의 직업, 자녀 수,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수준은 본 연구대상 취업주부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의미 있게 설명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취업주부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주부들의 스트레스 종류에 따라 관련된 인구학적, 심리적 변인들의 종류가 다르므로 먼저 중재해야 할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주부 스스로 자신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단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업했다는 생각보다는 직업 활동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가족 구성원들간의 화목, 융통성 있는 적응력이 취업주부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부 혼자 힘으로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든 역할을 다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가족구성원들도 주부의 역할에 대해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가족의식의 변화를 위해 대중매체 등을 통해 의식 전환의 기회를 도모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주말근무는 취업주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 요인이면서 직장에서 조절 가능한 요인이므로 기업에서는 근무시간의 자율화를 통해 취업주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고은숙, 김명자(1993). 취업부인의 스트레스와 내외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45-60.

- 2) 고정자, 김갑숙(1997). 취업주부의 미취업 주부에 대한 인과모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429-441.
- 3) 고정자(1994). 맞벌이 부부가족의 가족자원, 스트레스인지 수준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97-116
- 4) 구혜령(1991). 전문직 취업 주부의 역할 갈등과 갈등 대처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5) 김경아, 이정우(1990). 기혼 여성이 지각한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수준 및 관련 변인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01-118
- 6) 김경신(1996).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 및 관련변인이 가족원의 만족도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가정학회지*, 34(3), 157-171
- 7)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 적응력 및 복지감 연구. *숙대논문집*, 31, 31-56.
- 8) 김수연, 김득성 (1994). 맞벌이 부부의 응집 및 적응이 역할 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학가정학회지*, 32(3), 121-134
- 9) 김영철, 정향균, 이시형(1989). 일반 생활에서의 생활스트레스가 정신증상 및 신체 증상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28(2), 284-289.
- 10) 김영희(1992). 맞벌이부부가족에 있어서의 일과 가정생활의 역할갈등에 관한 이론적 모델 연구: 이론적 모델의 경로. *대한가정학회지*, 30(2), 139-158.
- 11) 김정자, 고경연, 김선희, 정영숙, 심혜숙, 최원철, 최순, 문소정(1998). 한국 기혼 여성의 일상적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I): 한국기혼여성의 삶의 질 실태 및 영향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6(12), 87-104
- 12) 박경숙(1993).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121-135.
- 13) 박미혜, 박영희(1999). 기혼여성 재택 근무자의 관리 행동과 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4), 1-16.
- 14) 안재연, 박성연(199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자녀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0(3), 307-324.
- 15) 유가효, 박혜인, 조희금, 박충선(1992).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 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 실태파악과 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II). *대한가정학회지*, 30(1), 283-309.
- 16) 이기영, 구혜령(1992). 전문직 취업 주부의 역할 갈등과 갈등대처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99-112.
- 17)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1991). 기혼취업 여성이 지각하는 가정, 직업 생활갈등 및 부적응증상과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3.
- 18) 이정우, 이미선(1995). 취업 주부와 지각한 가족응집력, 적응력 및 가사 노동수행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3(3), 1-15.
- 19) 이정희 (1993). 취업모 자녀간 애착 안정성과 관련변인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 이평숙(1984).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21) 임혜경, 임정빈(1995). 취업 주부의 작업-가정 갈등, 가사노동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만족간의 인과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3), 1-15.
- 22) 장병옥, 이정우(1998). 취업주부의 역할수행 · 가정생활기여도 및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39-52.
- 23) 전영자(1997). 전문직 취업 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 방안, 심리적 결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339-356.
- 24) 정문자, 이미리, 어주경(1998).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특성 조사: 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삼성복지재단 지원과제 결과보고서.
- 25) 정문자, 이미리(1998). 도시 저소득층 주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척도 개발과 대처행동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6(12), 129-143.
- 26) 제미경, 박명희(1993). 도시 주부의 시간 절약 서비스 지출과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 31(3), 1-13.
- 27) 조은숙, 옥선화(1998). 비전문직 취업모의 역할 긴장에 대한 대처 행동 및 관련 변수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2), 55-71.
- 28) 조희금(1999). 취업여성의 일-가정 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 : 생산직과 사무직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2), 145-158.
- 29) Crouter, A. C., MacDermid, S. M., McHale, S. M., & Pery-Jenkins, M. (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4), 649-657.
- 30) Keith & Schafer. (1980). Role strain and depression in two-jobs families. *Family Relation*, 29, 483-488.
- 31) Kelly & Voytanoff. (1985). Work/family role among employed parents. *Family Relation*, 29, 473-480.
- 32) Mortimer, J. & London, J. (1984). The varying linkages of work and family. In P. Voytanoff (Ed.), *Work & Family* (pp.22-42). Palo Alto, CA : Mayfield Publishing Co.
- 33)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 34) Pleck, Staines, & Lang. (1980). Conflicts between work & family life. *Monthly Review*, 103, 29-31.
- 35) Wilkenfield, L. D. (1988). An investigation of dual career wives' perceptions of task sharing for a family systems approach. New York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